

'일본음식 알리기 친선대사'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일본음식·식문화에 관한 전문 의식을 가지고 해외의 일본음식 관계자 등의 상담에 친절하게 응해, 일본음식·식문화의 보급에 관한 확실한 조언을 하는 일본음식 관계자를 '일본음식 보급 친선대사'로 임명.

【참고】전형 기준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 전형 위원회가, 주로 이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형을 실시한다.

- (1) 일본 외에서의 일본음식·식문화 보급에 기여하는 활동 실적
- ① 해외에서의 일본음식·식문화 및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 등의 매력 전달
 - ② 일본음식·식문화의 국제적인 가치 향상에 공헌
 - ③ 해외 요리사 등에게 일본음식·식문화 전승
- (2) 일본 외의 일본음식·식문화에 관련된 사업자·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일본음식·식문화 보급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있어서 저명 요리사, 해외 요리학교 관계자, 해외 음식 관련 비즈니스에 강한 영향을 가진 푸드 라이터, 미디어 관계자, 그 밖의 인플루언서로 인정되는 사람과의 연동성

(3) 일본 국외로의 정보 발신력

일본음식·식문화 보급에 이바지하는 활동이 신문, 잡지, TV, Web 매체 등, 또는 복수의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나, 스스로 발신하고 있는 실적

(4) 앞으로도 해외에 일본음식·식 문화 보급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시할 의사를 가질 것.

- ① 향후 활동 예정의 구체성
 - ② 현재 활동과의 연동성
- (5) 일본 이외의 곳을 활동 거점으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출처: '일본음식 알리기 친선대사' 후보자 선발 요령)

○'일본음식 알리기 친선대사'는 요리강습회 등, 일본음식 관계자로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외에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일본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과 외국의 셰프·레스토랑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음식 보급 세미나 강사 등으로 협력.

○2015년 이래, 매년 임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 내 58명, 해외 87명(44개국·지역) 합계 145명이 임명.

